

Dubai유, 37달러 돌파 상승지속

석유공사, 현물가격 엇갈려 Brent유 하락 ... 유가불안 당분간 계속

고공비행을 계속하고 있는 국제유가가 현물시장에서는 유종별로 등락이 엇갈렸으며 선물시장에서는 러시아 석유 생산량 증가소식으로 보험세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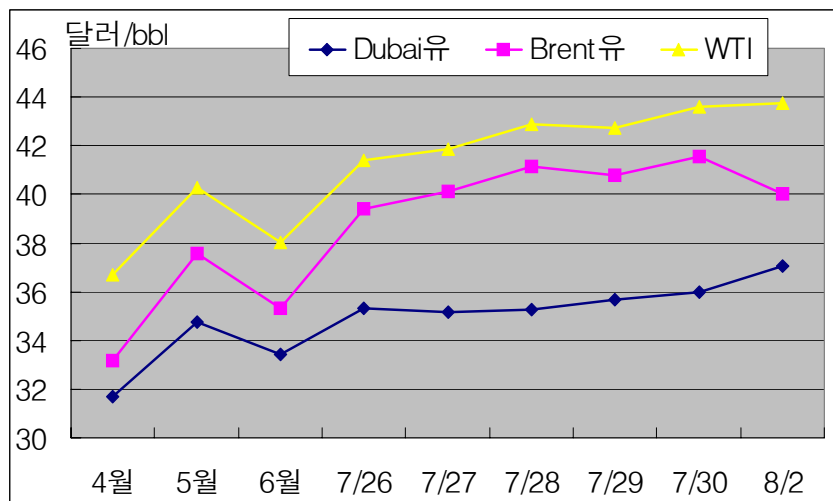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8월2일 거래된 중동산 Dubai유 현물가격은 배럴당 37.06달러로 전날보다 1.09달러 상승한 반면 북해산 Brent유는 1.53달러 떨어진 40.02달러에 장을 마쳤다.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43.73달러로 0.11달러 올랐다.

선물가격은 뉴욕상품시장(NYMEX)의 WTI 9월물이 0.02달러 오른 43.82달러를 기록했으며 런던국제석유거래소(IPE)의 Brent유는 0.06달러 하락한 39.97달러에 거래가 마감됐다.

WTI 선물유가는 장중 한때 43.94달러까지 상승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추이(2004)



석유공사는 “국제유가가 러시아 석유 생산량 증가소식에도 불구하고 세계 석유 공급차질 우려와 미국 테러 발생 우려 증대에 따라 보험세로 마감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현재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잉여생산능력이 매우 낮은 상태로 생산차질이 발생하게 되면 추가생산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 유가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화학저널 2004/08/04>